

대순사상과 여성 - 21세기 남녀평등의 새로운 이념모색

李京源*

目次

I. 글머리에 :	
왜 '여성'을 말하는가.	
II. 새로운 세계관과 여성관	
1. 천지공사와 후천세계	1. 陰陽合德의 남녀평등론
2. 새로운 여성관의 정립	1) 一陰一陽의 남녀
1) 陰德論	2) 正陰正陽의 남녀
2) 大丈夫論	2. 解冤相生의 남녀평등론
III. 대순종지의 敎義와	
남녀평등의 이념	1) 해원과 여성해방
	2) 새로운 관계로서의 상생
	IV. 글을 맺으면서 : 남녀평등의
	이념에서 인류평화의 이념으로

I. 글머리에 : 왜 '여성'을 말하는가.

20세기를 보내고 21세기를 맞이하는 문턱에서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천년에 대한 기대와 설레임으로 지세워왔던 것 같다. 한 세기를 마감하고 또 한세기를 맞이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큰 단위로서 새로운 천년의 해를 맞이하는 시점은 인류의 역사에서 좀처럼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사회 각계에서의 기대가 분분하고 또한 알 수 없는 불안감에도 시달려 왔던 것이 사실이다. 새천년에 대한 기대라는 것은 20세기 최근까지 산적되어 왔던 인류의 공통문제(환경문제, 식량자원문제, 에너지문제, 전쟁문제 등)가 새로운 차원에서 해결되기를 바라는 심정을 말할 것이며, 이에 반해 불안감이란 그 문제가 더 이상 해결될 실마리가 없이 종말적 파국을 맞을

* 대진대학교 대순종학과 교수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것을 말한 것이다. 하지만 어쨌든 새천년은 맞이했고 1999년 말의 Y2k문제나 종말론적 시각은 한 고비를 넘긴 것으로 본다. 이러한 막연한 우려나 기대는 역시 인간의 나약함에서 기인하는 것인 바,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보다도 21세기의 問題群을 직시하고 이를 인간주체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어야 하리라 본다.

21세기의 문제군에 대해 일본의 철학자 中村雄二郎 교수는 환경보존의 문제와 함께 정보 네트워크사회의 미래에 대한 적응 그리고 이에 따른 공동체 문화의 건설에 대한 이론을 역설한 바 있다.¹⁾ 이와 함께 새천년 벽두에 화제가 되었던 김용옥교수의 강의에서는 21세기 인류의 최대 과제로서 인간과 자연의 화해, 종교간의 대화, 그리고 지식과 삶의 하나됨을 주장하면서 여기에 ‘老子’적 가치관을 대입하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여기서 필자가 발견할 수 있는 21세기 인류평화를 위한 방안이란 결국 대립되었던 개념이나 집단 사이의 화해의 계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냐의 문제를 말하며, 나아가 발달된 과학문명으로 인해 주어지는 편리한 공동체적 삶을 인간이 어떤 이념 하에서 영위해나갈 것이냐의 문제로 귀결됨을 보게된다. 이는 한마디로 본 대회 주제인 ‘인류평화’의 문제와 연맥된 것이며, 여기에 화해의 계기를 가져다 주고 새로운 삶을 이끌어 가는 이념으로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곧 ‘대순사상’임을 천명하는 것이 또한 본 대회의 목적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관점에 입각해서 필자가 하나의 주제로 삼은 것은 ‘여성문제’와 관련한 것인데, 이는 21세기가 여성의 시대라고 하는 목소리와 함께 최근까지의 학계에서 보인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21세기 인류 평화의 과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주체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였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낡은 고정관념에서 탈피한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움직임에 있어서 철학이나 종교학계에서는 21세기의 문턱에서 대대적으로 뿌리깊은 남녀 성 차별의 관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최근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든다면, 1997년도 4월에 ‘한국 여성철학회’가 발족되어 여성철

1) 나카무라 유지로, 이지원 역 『21세기 問題群』, 1996, 푸른 숲

학의 본격적이고도 폭넓은 이론적 실천적 활동을 선언한 것이 필두가 되었는가 하면, 그해 12월에는 한국종교교육학회에서 '여성에 대한 종교의 사회교육적 기능'이라는 주제로 각 종교의 활동을 고찰하는 학술대회가 이루어졌다. 이어서 20세기를 마감하는 1999년에는 「여성·종교·생명공동체」라는 주제로 영산원불교대학에서 제 종교의 여성관을 다루었고, 이 해 서강대 종교연구소에서 주최한 춘계 월례발표회에서는 3,4,5월달에 각각 '종교전통과 여성'이라는 대주제로 '탈가부장제 종교문화의 전망'을 다루었다.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억압적인 세계관으로 이름이 높은 유교사상내에서도 1999년 11월에 한국유교학회의 주최로 '유교와 페미니즘의 만남'을 시도한 학술대회는 이제 더 이상 전통적 세계관이 고집될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급기야는 1999년 한국종교학회 추계대회에서는 '종교와 여성'이라는 분과가 신설됨으로서 2000년도 종교학분야에 여성문제가 하나의 연구영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2000년 6월에는 한국철학사상연구회에서 페미니즘과 21세기 철학을 '차이에서 연대로, 연대에서 차이로'라는 방향에서 그 이념문제를 다룬 것 등은 철학과 종교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에게 '여성문제'를 하나의 화두로 제시하기에 충분했다고 본다. 이상과 같은 학계의 동향은 그만큼 우리시대 지성인들이 '여성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필두로 인류의 새로운 가치관 확립을 선도하고자 하는 사명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본다. 이로써 모든 집단이나 개인은 이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함께 참여의 태도를 가질 것을 계몽하는 것이라 하겠다.

대순종단의 교리를 담고 있는 대순사상은 오늘의 시점에서 현실참여의 태도를 견지해야 할 것은 당연하다 하겠으며, 나아가 21세기 인류평화의 과제에 여성문제가 하나의 테마로서 논의되는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관점의 제기도 필연적인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대순사상의 敎義에서 이야기 될 수 있는 여성관은 어떠한 것이며, 나아가 남녀성차별의 문제에서 남·녀 평등을 위한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대순사상을 말하고, 이것이 곧 인류평화의 이념과 직결됨을 결론적으로 서술해보기로 하겠다.

Ⅱ. 새로운 세계관과 여성관

1. 천지공사와 후천세계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새로운 세계관은 절대권능의 소유주로서 降世한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구천상제는 구한말의 역사적 대 종교가로서 활동한 菱甌山 聖師(1871~1909)를 지칭한다. 聖師는 곧 九天 大元造化主神으로서 삼계대권을 주재하고 천하를 大巡하다가 인세에 大降하여 常道를 잃은 천지도수를 정리하고 後天의 무궁한 仙境의 運路를 열어 지상천국 건설을 위한 대공사를 행하신 것으로 신앙된다.²⁾ 이어서 오늘날 종단에서는 聖師를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로서 봉안하고 그 위격과 권능에 최고신으로서의 절대성을 부여한 것으로 신앙의 근간을 삼는다. 대순사상이란 곧 이같은 구천상제에 대한 신앙을 중심으로 새로운 종단의 창설과 더불어 그 宗旨를 세우고 信條를 정하여 확립된 제반 교리의 이념을 가리키는 말로서 이해될 수 있다.

구천상제께서 인세에서 행한 주된 役事는 무엇보다도 '天地公事'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변혁의 구도를 확립한 것이라 하겠다. 단순히 세계변화의 흐름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인류가 바라는 이상세계를 구천상제의 권능으로 새로 지어서 안겨준다는 것이 공사의 大義이다. 개인의 '私事'가 아닌 천지의 '公事'임을 표방할 때 이는 인류가 새롭게 받아들여야만 될 세계관을 내포하고 있고, 꼭 이대로 실현될 것임을 믿는 것이 또한 신앙의 계기를 이루는 것이다. 여기서는 이러한 '天地公事'의 大義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聖句를 언급해보는 것으로 그 개요를 이해해보기로 하겠다.

상제께서 이듬해 사월에 김 형렬의 집에서 삼계를 개혁하는 공사를 행하셨도다. 이 때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야 하느니라. 그것을 비유컨대 부모가 모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자식이 얻어쓰려면 쓸때 마다 얼굴이 쳐다보임과 같이 낡은 집에 그대로 살려면 엮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불안하여 살기란 매우 괴로운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하여야 하나니 대개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오.

2) 대순진리회 교무부 刊 「대순진리회 요람」 1969, p.8 참조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오.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 나는 삼계의 대권을 주재하여 선천의 도수를 뜯어고치고 후천의 무궁한 선운을 열어 낙원을 세우리라」 하시고 「너는 나를 믿고 힘을 다하라」 고 분부하셨도다.(『典經』공사 1장 2절)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고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 무릇 크고 작은 일을 가리지 않고 신도로부터 원을 풀어야 하느니라. 먼저 도수를 굳건히 하여 조화하면 그것이 기틀이 되어 인사가 저절로 이룩될 것이니라. 이것이 곧 삼계공사(三界公事)이니라」 고 김형렬에게 말씀하시고 그중의 명부공사(冥府公事)의 일부를 착수하셨도다.(『典經』공사1장 3절)

윗 글에 입각하여 天地公事의 大義를 이해해보면, 첫째 천지공사는 낡은 집에서 불안하게 사느니 차라리 허물어버리고 새로운 집을 짓는 것과 같이 天地를 그렇게 개조하는 작업이다. 둘째, 이러한 천지공사는 역사적으로 어느 누구도 감히 행할 수 없었던 일로써 오직 구천상제의 절대권능으로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셋째, 천지공사는 역사적으로 선천과 후천을 가름하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며 이때 선천은 상극에 지배되어 원한이 쌓이고 이로써 갖가지 재화가 발생하여 참혹해진 시대를 말하며, 후천은 상제의 권능으로 천지도수를 정리하여 만고의 원한이 풀리고 상생의 도로써 이룩되는 지상의 선경을 말한다. 이와 같이 천지공사는 낡은 天地를 새로운 天地로 개조하는 구천상제의 대역사임을 재확인하게 된다.

천지공사 이후 인류의 역사는 결과적으로 '後天'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같은 후천의 모습은 어떻게 그려지는가. 다음의 聖句에서 그 단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합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典經』예시80절)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법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

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 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수·화·풍(水火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典經』 예시 81절)

즉 後天은 말하자면 공동체사회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세계이며, 그 지배이념이 구성원들에게 완벽하게 각인되어 어떠한 일탈도 발생하지 않는 세계이다. 그리고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어떠한 대립과 투쟁이 없는 만국화평의 세계가 후천이다. 세대간의 윤리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정치적 경제적 평등이 실현되고 우주를 향한 고도의 문명이 건설되며 인간의 수명이 무한대로 연장되며 지식과 삶이 하나가 되고 인간에게 혜택만을 가져다주는 이상적인 자연환경이 이룩된다. 마치 유토피아적인 관념으로 이루어진 것 같지만 천지공사 이후 100년이 지난 지금 이미 우리의 세계는 최소한 과학문명과 세계통합의 측면에서는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된다. 빛의 속도보다도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문명은 지역간의 격차를 없애고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키며 나아가 공동체 사회건설을 물리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인간해방을 향한 지속적이고도 자유로운 논의와 종교간의 대화를 위한 끊임없는 시도는 머지않아 새로운 인간문화의 패러다임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대순사상의 세계관은 새로운 인류문명의 흐름을 주도하고 또 그 안목에서 세계를 바라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하겠다. 후천세계의 가치는 무엇보다도 '만국화평' 즉 진정한 '인류평화'의 달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물질적·정신적 가치가 고도의 성숙을 이룬 것이 그 실상을 이루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후천세계를 지향하는 대순사상에서는 어떤 여성관을 표방하고 있는가. 이것은 마땅히 후천세계의 구성원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새로운 여성관의 정립

1) 陰德論

여성운동에서 주류를 형성하는 페미니즘 이론은 현대에 이르러 그 이론적 작업과 정치적 실천간의 긴장이 발생하면서 많은 논쟁과 협상이 동원되는 실정이다. 그것은 엘리자베스 그로츠가 표현한 “페미니스트가 직면한 딜레마는 지적인 엄격함의 목표(본질주의와 보편주의의 개념적 실책을 피하는 것)와 페미니스트적 정치적 투쟁(여성으로서 여성의 자유를 지향하는 투쟁)간의 갈등과 관련된다.”³⁾는 언표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범주의 수용문제가 많은 비판을 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모든 ‘여성문제’의 발생이 가부장제 전통하에서 이루어지는 남성의 ‘여성성’에 대한 편견에서 기인한다고 할 때,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자신의 권익을 확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전통적으로 볼 때 대개 남성을 보편적 인간으로 설정하고 여성은 그에 반하거나 못 미치는 성향을 갖는 것으로 가정해왔다. 이성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또는 생산능력의 측면에서 남성보다 열등하므로 기껏해야 복종 침묵, 정절과 같은 것만이 ‘여성적’ 미덕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대에 이르러 낸시 초도로우⁴⁾나 캐롤 길리건⁵⁾ 등에 의해 여성성을 보편적 인간으로서의 남성이 갖는 특성의 결핍이 아닌 여성성 그 자체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긴 했으나 해체주의적 시각도 전제한다면 단일한 여성범주가 지니는 정체성의 문제는 아직도 많은 논의대상이 될

3) Elizabeth Grosz, *Sexual Difference and the Problem of Essence*, in the *Essential Difference* by Naomi Schor & Elizabeth Weed, Indiana Press, 1994, p.93 (현남숙 「여성; 차이와 정체성」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춘계학술발표회, 2000, 재인용)

4) 초도로우는 여성성을 남근의 결여로부터 설명하는 프로이트와 기존의 심리분석적 설명방식을 비판하면서 성정체성의 근원을 대상관계, 유아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 관계맺는 방식에서 찾았다. (Nancy Chodorow, *The Reproduction of Mothering ; Psychoanalysis and the Sociology of Gender*,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현남숙 상계논문)

5) 길리건은 관계적 성향을 여성성으로 발굴해 낸 초도로우의 작업을 계승해 자신의 도덕이론인 ‘보살핌의 윤리학’으로 발전시킨다. 그녀는 남성적 관점에서 여성을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규정한 콜버그의 도덕발달이론을 비판하면서 그동안 열등한 것으로 치부되었던 여성성의 가치를 복원하고자 하였다. (In a *Difference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Development*(1982), 현남숙 상계논문)

수 밖에 없다.

여성에 대한 대순사상적 관점의 이해는 먼저 관념적 측면에서 전제되는 '음양이론'에 그 토대를 두고 있다. 여기서 음양론은 동양학의 전통에서 하나의 세계관의 전형을 이루는 것으로, 이 세계의 유기적 구조를 '陰'과 '陽'이라는 對待的관념으로서 설명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이다.⁶⁾ 이 때 음과 양의 對待性이란 서로의 성질을 극단적으로 달리하면서도 그것이 대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존재함에 의해 자신이 존재하는 관계' '상호 대립하면서 상호 의존하는 관계'⁷⁾가 그 본질을 이룬다. 이러한 음양의 원리적 근원성에 대해서 『周易』에서는 '太極'이라는 궁극자에 한정시키면서⁸⁾ 그 이론적 통일을 이루고 있다. 말하자면 '相對的 二元性'과 '融和的 一元性'의 구조에서 이 세계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사상에서도 주요한 기저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⁹⁾ 대순사상에서는 그러한 동양적 사유를 바탕으로 간과되기 쉬운 '陰'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는 것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찾고 있다고 하겠다.

『典經』에 소개된 음양개념의 현실적 이해는 다음의 '陰陽經'에 나타난 내용을 참고로 하여 살펴볼 수 있다.

陰 陽 經

乾定坤順乾陽坤陰日行月行日陽月陰有神有人神陰人陽有雄有雌雌陰雄陽有
內有外內陰外陽有右有左左陰右陽有隱有顯隱陰顯陽有前有後前陽後陰天地
之事皆是陰陽中有成萬物之理皆是陰陽中有遂天地以陰陽成變化神人以陰陽
成造化天無地化無布於其下地無天功無成於其上天地和而萬物暢天地安而萬
象具神無人後無托而所依人無神前無導而所依神人和而萬事成神人合而百工
成神明竣人人竣神明陰陽相合神人相通然後天道成而地道成神事成而人事成
人事成而神事成神明神明天地諸神明下鑑垂察奉命身太一聖哲所願成就

윗 글에서 用例로 들고 있는 음과 양의 구체적 현상에 대해서는 각각 乾/

6) <對待>관념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陰陽>이며, 이 음양 對待的 구조를 기저로 하여 성립된 것이 『周易』의 사상체계이다. <對待>관념은 『周易』에서 원초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영진 『역사상의 철학적 탐구』 성대 박사학위 논문, 1989, p.33)

7) 金谷治 『易の話』 동경, 강담사, 1972, pp.150~151

8) 『周易』繫辭傳上 「故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9) 柳承國 「한국인의 神觀」 『한국사상과 현대』 동방학술 연구원, 1988 pp.197-199
참조

坤, 日/月, 神/人, 雌/雄, 內/外, 左/右, 隱/顯, 前/後등이 있다. 이와 같은 음양이 천지의 사물을 구성하는 상대개념이 되며 이로써 천지를 이루고 또한 모든 변화와 造化를 이룬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할 사항은 곧 음과 양의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뒤에 "하늘이 있고 땅이 없으면 그 아래에 배플 곳이 없고, 땅이 있고 하늘이 없으면 공이 그 위에서 이루어 질 곳이 없다. (따라서) 천지가 화합하여 만물이 자라며, 천지가 안정되어 만상이 구비된다"고 하는 설명에서 알 수 있듯이 음과 양의 대명사격에 해당하는 天과 地는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음의 개별적 실체에 배속되는 坤, 月, 神, 雌, 內, 左, 隱, 後등도 양의 실체인 乾, 日, 人, 雄, 右, 顯, 前 등에 대해서 독자적인 가치를 지니면서도 상대적으로는 불가분의 의존성을 지니고 있음을 파악하게 된다.

여성은 본 經에서 주로 상대적 남성인 雄에 대한 '雌'에서 유추된 개념임을 알 수 있는데, 특별히 음과 양의 實體로서 女/男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雌/雄이라고 한 것은 주목해 볼 만하다. 雌雄은 암컷과 수컷 즉 생물학적 특성에 기반한 性的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인데 인간사회에서 男과 女는 다같이 天賦의 인권을 지닌 존재로 그러한 생물학적 특성에 근거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여성의 지위문제가 전통적으로 산적해 왔던 것이다. 이 말은 여성문제가 주로 여성의 '몸'에서 그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상대적으로 우등한 남성이 역사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하나의 機制로 삼았던 것에서 그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말하자면 음-수동적-소극적-유약함, 양-능동적-적극적-강인함의 이원론적 구도에서 성차별의 지속적인 문제를 유발시켜 왔던 것이다. 동물세계에서나 지배되는 '弱肉強食'의 법칙이 인간사회에서도 지배되어 모든 불평등과 전쟁을 야기시켰다면 오늘날의 여성문제도 상대적으로 남성의 이기적 이해의 측면에서 발생한 것임을 부정할 수 없다.¹⁰⁾ 따

10)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학자중에는 음양론에 입각하여 음-녀 양-남으로 유비되는 방식에 대해 여성주의는 원칙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김세서리아 「음양 개념의 이해에서 나타나는 성차 인식을 넘어서」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추계발표회, 2000) 하지만 음양개념을 넘어서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고 나아가 '여성을 직시하는것'의 동양적 설명은 무엇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논평자의 의문점이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음양론은 남녀의 관계론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효한 동양적 이론임을 간과할 수 없다.

라서 음양론에 입각하여 여성관의 정립을 논한다면 그것은 먼저 음녀, 양남의 구도에서 설명되는 여성에 대한 이해를 남성 편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음양으로 이루어진 상대적 진리의 세계에 대한 인간보편의 인식이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새시대의 대순사상은 이러한 음양론의 진리성을 부각시키고 인류전체를 계몽하는 입장에서 그 역할이 부각된다 할 것이다.¹¹⁾

대순사상에서 여성의 상징인 陰은 ‘陰德’ 또는 ‘地德’으로 묘사되어 그 가치와 역할이 지대함을 말하고 있다. 즉

모든 일에 외면 수습을 버리고 음덕에 힘쓰라. 덕은 음덕이 크니라.
(『典經』 교법 2장 18절)

선천에서는 하늘만 높이고 땅은 높이지 아니하였으되 이것은 지덕(地德)이 큰 것을 모름이라. 이 뒤로는 하늘과 땅을 일체로 받아들여야 하느니라.(교법 1장 62절)

라고 하여 陰 또는 땅의 존재가 陽이나 하늘에 대해 상대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음은 양에 가려져서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의 드러남만큼 그 음의 존재의의가 부각되는 것이며 따라서 새로운 시대에는 이와 같은 음과 양의 가치가 공히 발휘되어 一體로서 받아들여지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음의 가치가 이렇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은 “만사가 음에서 발생하여 양으로 펼쳐나가므로 먼저 음의 어두움을 살피고서 양의 밝음을 보게되니 매사에 먼저 그 시발처를 살펴야만 한다”¹²⁾고 하는 시각에서 대두되는 것이다. 여성의 정체성을 이와 같은 ‘陰德’ 이나 ‘地德’에서 찾는다면 ‘陽德’이나 ‘天德’에 해당하는 남성에 비해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며, 대등하거나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는 가치를 지니고 男女승의 人間事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결국 여성관에 대한 본질적 이해는 대순사상에서 하나의 보편적 인간의 문제로 귀결되며 올바른 여성이해는 올

11) 『대순지침』에는 이러한 음양론이 대순진리의 이론적 기반이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도가 음양이며 음양이 이치이며, 이치가 곧 경위이며 경위가 법이라는 진리를 깨달아야 한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1984

12) 『典經』 제생43절 「... 萬事起於陰 以布陽 先察陰晦 以觀陽明 每事先觀始發處...」 참조

바른 인간이해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됨을 시사한다 하겠다.

2) 大丈夫論

여성문제를 인간문제로 귀결시킴으로서 자칫 엄연히 상존하는 여성차별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으로 오인되어서는 안된다.¹³⁾ 오히려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확고한 자각을 일깨우고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대한 변혁의 의지를 견지한 채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주체적 여성상이 드러나야만 한다. 그리하여 구체적 현실 속에서 하나의 대사회적 실천이 확연하게 드러날 때 비로소 여성관의 올바른 정립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순사상에서의 음덕론이 본질적 측면에서 다룬 여성관이었다면 이와 같은 실천적 측면에서는 ‘大丈夫論’이 주요하게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상식적인 용어에서 알려진 ‘大丈夫’는 주로 가부장적 전통하에서 남성의 권위와 체면을 상징하는 용어로 알려져 있다. 대순사상에서는 ‘지아비’로서의 父性만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지어미로서의 ‘母性’이 강조되어 ‘大丈夫’라는 용어를 새롭게 받아들이고 있다.

상제께서 하루는 공사를 행하시고 「대장부(大丈夫) 대장부(大丈夫)」라 써서 불사르셨도다.(『典經』 교법 2장 57절)

이는 마치 가부장제(patriarchy) 사회에서 가모장제(matriarchy) 사회로 전이 될 것을 주장하는 페미니스트의 입장에도 연관되는데 가부장제에 대칭이 되는 ‘여성의 남성지배’라는 의미의 가모장제는 역사에서 결코 존재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때 이는 여성적 가치(억압과 폭력이 아닌 모든 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가치)가 그 사회의 지배적 가치로서 자리잡는 하나의 이념적 구상

13) 여성학자 매리 델리는 여성차별의 문제를 외면하는 몇가지 유형에 대해 크게 네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이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trivelize) 것과 둘째 특수화(particularize)시키는 것. 셋째, 정신화(spiritualize)시키는 것, 넷째 보편화(universalize)시키는 것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보편화의 문제는 주로 지식인들이 사용하는 말로서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니라고 보지만 이 명제가 성차별을 외면하기 위하여 사용될 때에는 분명히 옳지 않은 것임을 일깨우고 있다.(Mary Daly, *The Woman's Movement; An Exodus Community*; Elizabeth Clark & Herbert Richardson, eds, *Women and Religion*(harper&Row, 1977)p.265, 황필호 외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동국대출판부, 1986 p.71에서 재인용)

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용어이다.¹⁴⁾ 대순사상에서 말하는 大丈婦는 이와 같은 여성적 가치를 전제하고 새시대, 즉 후천세계를 맞이하여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motto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여성이 '여성으로서의 경험'에 입각한 자연스러운 실천이 나타나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잠재력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 '大丈婦'는 그 잠재력을 지닌 여성이며 또한 그만한 실천력을 발휘하는 여성을 지칭한다. 이는 무엇보다도 여성 자신의 자각에 기초를 두고 있으므로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시 된다.

백 남신의 친족인 백 용안(白龍安)이 관부로부터 술도매의 경영권을 얻으므로써 전주 부중에 있는 수백개의 작은 주막이 폐지하게 되니라. 이 때 상제께서 용두치 김 후보의 주막에서 그의 처가 가슴을 치면서 「다른 별이는 없고 겨우 술장사하여 여러 식구가 살아왔는데 이제 이것마저 폐지되니 우리 식구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통곡하는 울분의 소리를 듣고 가엾게 여겨 종도들에게 이르시기를 「어찌 남장군만 있으랴. 여장군도 있도다」 하시고 종이에 여장군(女將軍)이라 써서 불사르시니 그 아내가 갑자기 기운을 얻고 밖으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도다. 순식간에 주모들이 모여 백 용안의 집을 급습하니 형세가 험악하게 되니라. 이에 당황한 나머지 그는 주모들 앞에서 사과하고 도매 주점을 폐지할 것을 약속하니 주모들이 흩어졌도다. 용안은 곧 주점을 그만 두었도다.(『典經』 권지 1장 17절)

윗 글에 나타난 여성의 잠재력은 '여장군'으로서 드러났고 이로써 한 집안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다. 이 때 여장군은 '大丈婦'와 연맥되어 있고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인간적 삶의 주체가 되고 사회 속에서 억압받는 집단의 권익을 대변하는 뚜렷한 자기 발언의 태도를 갖추고 있는 여성인 것이다. 이러한 大丈婦는 나아가 종교적 신앙대상과도 그 짝을 이루는 '首婦'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상제께서 二十三일 오전에 여러 종도들에게 가라사대 「이제 때가 바쁘니라. 너희들 가운데 임술생(壬戌生)으로서 누이나 딸이 있거든 수부(首婦)로 내세우라. 형렬이 「수부로서 저의 딸을 세우겠나이다」고 아뢰이

14) 강남순 『페미니즘과 기독교』 대한기독교서회, 1998, p.13참조

니 말씀하시기를 「세수 시키고 빨 옷으로 갈아입혀서 데려오라」 하시니라. 형렬이 명하신 대로 하여 딸을 상제 앞에 데려오니라. 상제께서 종도들로 하여금 약장을 방 한가운데 옮겨 놓게 하시고 그의 딸에게 약장을 세번 돌고 그 옆에 서게 하고 경석에게 「대시 태조 출세 제왕 장상 방백 수령 창생점고 후비소(大時太祖出世帝王將相 方伯守令養生點考后妃所)」를 쓰라 이르시니라. 경석이 받아 쓸제 비(妃)를 비(妣)로 잘못 쓴지라. 상제께서 그 쓴 종이를 불사르고 다시 쓰게 하여 그것을 약장에 붙이게 하고 「이것이 예식이니 너희들이 증인이니라」고 말씀을 끝내고 그의 딸을 돌려보내시니라. 상제께서 경석에게 그 글을 거둬 불사르게 하셨도다.(「典經」행록 5장 31절)

首婦는 首夫와 짝이 되는 개념이며 이 때 首夫는 대순사상에서 신앙대상으로서의 '구천상제'이다. 여성의 종교적 영성은 여성으로서의 종교적 경험에 기초한다고 하겠는데 이것도 역시 여성적 가치에서 '종교성'과 '여성성'의 상호 접맥된 의미를 추구하고 있다 하겠다.¹⁵⁾ 기성종교의 전통적 가치에서 제외되어 왔던 여성의 영성이 대순사상에 있어서는 '首婦'로서 승격되고 나아가 남성에게만 국한되던 신앙대상의 반열에서부터 이해되고 있는 것을 보면 실로 여성의 존재는 그 역할과 가치면에서 남성과 대등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실감하게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순사상의 여성관은 새로운 세계관의 성립과 함께 주어지는 변화된 가치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대순사상에서 여성관을 다룬다 함은 여성이 남성과의 대립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여성이 지배하는 세계를 지향하기 보다는 보편적 인간이해로부터 남녀의 관계성을 파악하고 이로써 진정한 남녀평등의 사회를 이룩하는 교의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다.

Ⅲ. 大巡宗旨의 敎義와 남녀평등의 이념

대순사상에서의 宗旨란 신앙대상이신 구천상제께서 행한 천지공사의 이념

15) 여성신학자 이은선교수는 '여성으로 종교말하기'에서 여성적 영성에 대해 크게 세가지로 나누어 말한 바 있다. 첫째 통합성의 영성, 둘째 타자성의 영성, 셋째 지속성의 영성이 그것인데. 이는 또한 페미니즘의 의식과 비판을 거친 '여성주의적'(feminist) 영성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다.(이은선 「여성으로 종교 말하기」 한국종교학회 2000년 춘계발표회)

을 새로운 종단의 교리로서 해석한 것을 말한다. 陰陽合德 神人調化 解冤相生 道通眞境의 16자로 이루어진 종지의 내용은 모두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을 내포하고 있다. 여기서 남녀평등의 이념을 논한다면 주로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을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음양합덕의 교의에서는 음양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합덕이라는 이상적 경지를 주창한다고 보며, 해원상생에서는 해원을 위주로 이룩된 천지공사의 이념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상생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은 宗旨의 教義에 입각하여 남녀의 관계성과 그 평등문제를 다뤄보면 다음과 같다.

1. 음양합덕의 남녀평등론

음양합덕의 교의에 있어서 남녀의 관계성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의 聖句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상제께서 어느날 후천에서의 음양도수를 조정하시려고 종도들에게 오주를 수련케 하셨도다. 종도들이 수련을 끝내고 각각 자리를 정하니 상제께서 종이쪽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후천 음양도수를 보려하노라. 각자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점을 찍어 표시하라」고 이르시니 종도들이 마음에 있는 대로 점을 찍어 올리니라. 웅종은 두 점, 경수는 세 점, 내성은 여덟 점, 경석은 열두 점, 공신은 한 점을 찍었는데 아홉점이 없으니 자고로 일남 구녀란 말은 알 수 없도다」고 말씀하시고 내성에게 「팔 선녀란 말이 있어서 여덟 점을 쳤느냐」고 묻고 웅종과 경수에게 「노인들이 두 아내를 원하나 어찌 감당하리오」라고 말씀하시니 그들이 「후천에서는 새로운 기력이 나지 아니하리까」고 되물으니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상제께서 경석에게 「너는 무슨 아내를 열 둘씩이나 원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열두 제국에 하나씩 아내를 두어야 만족하겠나이다」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상제께서 다시 「그럴 듯 하도다」고 말씀을 건너시고 공신을 돌아보면서 「경석은 열 둘씩이나 원하는 데 너는 어찌 하나만 생각하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건곤(乾坤)이 있을 따름이오 이곤(二坤)이 있을 수 없사오니 일음 일양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고 아뢰니 상제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고 하시고 공사를 잘 보았으니 「손님 대접을 잘 하라」고 분부하셨도다. 공신이 말씀대로 봉행하였느니라. 상제께서 이 음양도수를 끝내고 공신에게 「너는 정음 정양의 도수니 그 기운을 잘 견디어 받고 정심으로 수련하라」고 분부하시고 「문왕(文王)의 도수와 이윤(伊尹)의 도수가 있으니 그 도수를 말으려면 극히 어려우니라」고 일러주셨도다. (「典

經」 공사 2장 16절)

즉 천지공사의 이념에 따르면 음양에 대해서는 각각 ‘一陰一陽’ ‘正陰正陽’의 이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모두 음 양 각각의 정체성과 함께 그 관계성을 엿볼 수 있는 용어라 생각된다. 여기서 남녀평등의 이념을 모색하면서 그 해석을 시도해보기로 한다.

1) 一陰 · 一陽의 남녀

음양합덕의 교의에 있어서 개념적으로는 음과 양이 그 덕을 합한다고 해석되므로 여성의 정체성이 陰德에 있다면 남성은 곧 陽德의 정체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음덕과 양덕의 합이 곧 세계의 이상적 경지를 이룰 수 있다는 말이니, 이미 음·양은 각자의 역할과 가치를 지나고 상호 의존하는 관계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하겠다. 음과 양의 올바른 관계맺음은 먼저 일음과 일양이라는 산술적 용어로서 그 정체성을 규정하고, 나아가 이것이 음과 양의 대등한 만남으로 이어져서 합덕의 경지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시각에서 이해된다. 『周易』 계사전에는 ‘一陰一陽之謂道’라고 하여 道의 근원성이 일음과 일양의 대대적 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이때 음양사상은 <相反應合>하고 <終始循環>하는 논리가 구비되어 있다고 보는데,¹⁶⁾ 일음과 일양은 그러한 작용을 뜻하는 주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대대적 관계에 있는 兩者는 경우에 따라 상호 배척적이며 적대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상대방을 부정할 수가 없다. 상대방의 부정은 곧 자신의 부정이기 때문이다.¹⁷⁾ 여기서 음과 양은 대등한 관계이고 서로 동권을 지닌 것으로 보는 것이다. 천지공사의 이념에서 확립된 일음과 일양은 이러한 동등 동권의 남녀관계를 암시하면서 현실적으로는 상호 대등한 만남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의 내용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종도들의 음양도수를 끝내신 상제께서 이번에는 후천 五만년 첫 공사를 행하시려고 어느날 박 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 하시니라. 공우가 지식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

16) 今井宇三郎 『宋代易學の研究』 東京 明治圖書株式會社, 昭和32, p.119

17) 崔英辰, 상계논문, pp.28~29

아되기를 「선천에는 청춘 과부가 수절한다 하여 공방에서 쓸쓸히 늙어 일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불가하오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홀아비를, 늙은 과부는 늙은 홀아비를 각각 가려서 친족과 친구들을 청하고 공식으로 예를 갖추어 개가케 하는 것이 옳을 줄로 아나이다」고 여주니 상제께서 「네가 아니면 이 공사를 처결하지 못할 것이므로 너에게 맡겼더니 잘 처결하였노라」고 이르시고 「이 결정의 공사가 오만년을 가리라」고 말씀하셨도다. (『典經』 공사 2장 17절)

윗 구절에 나타난 남녀 관계는 역사적으로 남성이 중심이 된 사회구조를 비판하고 이에 상대적으로 희생되어야만 했던 여성의 권익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후천의 세계를 그리고 있다. 말하자면 여성은 남성의 부속물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으며 남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자격이 천부적으로 주어진다. 여성이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이 사회에서 남성으로부터 구별되고 또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그 생리적인 조건도 있지만 그보다는 여성이 자라나는 환경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하게 거론될 수 있다. 『제 2의 성』을 저술한 보봐르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키워질 뿐이다”라고 유명한 명제를 제시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사회도 그렇게 남성이 지배해왔던 구조임을 도외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에서 여성은 ‘청춘과부가 수절’하는 것과 같이 상대적인 희생을 감수해야만 하는 역사를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역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차별대우가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면 남녀간의 평등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그 사회 구조가 변혁되는 계기를 맞이해서야 비로소 여성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는 먼저 이러한 사회구조의 변혁을 포함한 후천이라는 새로운 세계의 건설을 주도하면서 남녀관계에서의 일음일양이라는 대등한 관계맺음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2) 正陰 · 正陽의 남녀

앞에서 살핀 일음일양의 대등한 관계성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과 양의 개별적 가치가 확보되어야만 한다. 이것은 음과 양이 正

陰·正陽의 개념에서 '바름(正)'이라고 하는 가치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데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 바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바름'의 뜻에는 대표적으로 '不偏不斜' '正直' '正道' '端正' '마땅함(當)' '正位'등을 들 수 있다.¹⁸⁾ 이 뜻을 대체로 요약하면 개체의 '도덕성'과 함께 '위계상의 충실한 자기 역할(正位)'을 뜻한다고 본다. '도덕'에서 道는 곧 天道를 말하며, 德은 곧 人間 본성의 善함을 지칭한다. 天道에 입각한 人道의 실천을 주목표로 하여 이루어진 동양의 윤리는 음양론에 따른 사회질서에 있어서도 그러한 음과 양의 도덕적 측면이 강조된다. 음과 양을 각각 여성과 남성에 비유해 볼 때 그 관계의 측면에서는 서로의 도덕성에 하자가 없을 때 진정한 만남 즉 '舍德'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舍德이 또한 천지 변화를 주도하고 만물을 탄생시키는 주된 원리가 된다고 본다.¹⁹⁾

이상의 원리에 따라 남녀간의 '바름'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의 聖句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상제께서 이 곳에서 형렬을 만나 그를 데리시고 한산(韓山) 객주집에 좌정하시고 원일을 부르셨도다. 상제께서 원일에게 「술을 가져오라. 내가 오늘 벽력을 쓰리라」 하시니 그는 말씀에 좇아 술을 올렸더니 상제께서 잔을 받으시고 한참 동안 계시다가 술을 드시니 여태까지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음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며 벽력이 크게 일어나니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태인에 유숙하는 사람이 많았도다. 상제께서 이 일에 대하여 형렬과 원일에게 설명하시기를 「내가 이제 아침에 객망리 주막 앞을 지날 때에 한 소부가 길가의 풀에 내린 이슬을 떨며 지나가기에 그 연유를 물으니 그 소부가 친정의 부음을 듣고 가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그 뒤를 한 노구가 지팡이를 짚고 가며 소부의 자취를 묻는도다. 내가 그 연유를 따져 물었더니 그 노구가 앞에 간 소부는 나의 며느리이나 가운이 불행하여 어제 밤에 자식을 잃었는데 며느리가 장사를 치루기 전에 오늘 새벽에 도망 갔나이다. 며느리는 저희끼리 좋아서 정한 작배이니라고 대답하더라」 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그들에게 「대저 부모가 정하여 준 배필은 인연이오. 저희끼리 작배한 것은 천연이라. 천연을 무시하여 인도를 패하려 하니 어찌 천노를 받지 아니하랴. 그러므

18) 伍華 『周易大辭典』 中山大學出版社, 1993, p.93~94 참조

19) 『周易』 계사전 「子曰 乾坤 其易之門邪, 乾 陽物也, 坤 陰物也, 陰陽合德, 剛柔有體, 以體天地之撰, 以通神明之德, 其稱名也, 雜而不越, 於稽其類, 其衰世之意耶」

로 오늘 내가 벽력으로써 응징하였노라」고 하셔도다. 그 며느리는 벽력에 죽었노라고 전하는도다. (『典經』행록 3장 36절)

남녀간의 만남에 ‘天緣’이라고 하는 도덕적 근거를 전제한다면 상호간의 윤리에 있어서는 ‘人道’로서의 당위적 실천이 요구된다. 곧 正陰과 正陽의 조건이 갖추어졌을 때 진정한 합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남녀 관계에서 그 윤리적 실천을 논한다면 상대에게 극단적인 감정을 가지지 않을 것(不偏不斜), 스스로 정직하고 正道를 행할 것, 항상 몸가짐을 단정히 할 것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다음으로 ‘正陰正陽’은 사회적 위계질서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그 순응과 통제 관계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또한 ‘正’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周易』에서 괘를 해석할 때 ‘正’은 가장 존중되는 덕목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 陽爻가 陽位(초, 3, 5), 陰爻가 陰位(2, 4, 상)에 오는 경우를 말한다.²⁰⁾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자신의 위치에서 맡은 바의 책무 또는 도리를 다하는 것이 될 것이다.

어느날 상제께서 식사시간이 지나서 최 창조의 집에 이르셨도다. 그의 아내는 상제께서 드나드시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겼노라. 이날도 밥상 차리기를 싫어하는지라. 상제께서 창조에게 가라사대 「도가에서는 반드시 아내의 마음을 잘 돌려 모든 일에 어긋남이 없게 하고 순종하여야 복되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아내가 문밖에서 엿듣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 마음을 보신듯이 살피심에 놀라 마음을 바로 잡으니라. (『典經』행록 4장 7절)

위의 구절은 주로 부부 관계에 있어서 그 책무와 도리를 강조한 구절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가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주로 남성이 결정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행사해 왔으므로 여성의 발언권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가정에서의 자연스러운 관계란 각자의 분야에 절대적인 권위를 갖는 힘의 분업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음을 볼 때²¹⁾ 단지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닌 역할적인 면에서의

20) 64괘 가운데 6효 전부가 正을 얻은 괘는 既濟괘이며 모두가 不正을 얻은 괘는 未濟괘이다.

21) J.S. Mill 『The Subjection of Woman』 1869, 中 (황필호 上揭書, p.44 재인용)

상호 主導와 그에 따른 順應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 본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음양합덕의 남녀관계는 一陰一陽이후에 '正'이라고 하는 도덕성과 당위의 윤리가 상호간에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2. 解冤相生의 남녀평등론

1) 해원과 여성해방

현대의 여성해방운동에 대한 평가는 거의 1세기에 걸쳐서 얻은 여성의 참정권이 여성해방의 전부가 아니라는 자각에서 경제적, 도덕적, 사회적, 심리적, 관습적, 종교적 측면등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는 완전해방(full liberation)을 위해 노력하는 단계에 있음을 지적한다.²²⁾ '해방'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억압'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즉 억압된 집단이나 개인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그러한 억압의 상황이 극복된 다른 차원의 현실을 지향한다.²³⁾ 이 때문에 해방의 개념은 구속으로부터의 '석방'(release), '독립'(freedom)등의 뜻과 혼용되어 쓰이기도 한다. 여기서 억압의 주체이며 여성으로 하여금 그 해방의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존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남성'을 그 대상으로 들고 있다. 이에 여성은 남성과 동등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지님을 자각하고 나아가 다같이 인류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상에 참여하고 실천하는 구체적 실행의 모습들이 곧 '여성해방운동'의 본질로서 보여진다.

하지만 여성해방이 곧 '인간해방'의 관점에서 논의되는 한 그것은 필연적으로 여성 자신들의 의식개혁과 함께 남성들로부터의 협조를 요구하게 된다. 이것은 '여성문제' 또는 '여성차별'의 책임이 모두 남성에게 있다고 하여 곧 '남성분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모두의 의식개혁을 통해 그 새로운 사회질서를 수립하는 것만이 진정으로 인간해방을 달성하는 길임을 자각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순사상에서 제시하는 오늘날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은 현실적 관점에서 논의되는 '페미니즘'의

22) 『여성학의 이론과 실제』 여성학 교재편찬위원회, 동국대 출판부, 1997, pp.52~60참조

23) 강남순, 上揭書, p.21 참조

입장보다는 초월적 관점에서 일컬어지는 인간학의 관점에 더 가까이 다가가 있음을 보여준다.²⁴⁾

대순사상의 교의를 담고 있는 ‘解冤相生’의 이념은 ‘해원’이라는 과정과 ‘상생’이라는 윤리를 통해 남녀평등의 새로운 세계를 지향한다. 여기서 ‘해원’의 개념은 어느 개인이나 집단의 상대적 억압과 그에 따른 해방의 문제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보다 근원적인 원리의 차원에서 쏘 우주생명의 지난 역사를 총괄하는 교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것은 『典經』에 「상제께서 「선천에서는 인간 사물이 모두 상극에 지배되어 세상이 원한이 쌓이고 맺혀 삼계를 채웠으니 천지가 상도(常道)를 잃어 갖가지의 재화가 일어나고 세상은 참혹하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천지의 도수를 정리하고 신명을 조화하여 만고의 원한을 풀고 상생(相生)의 도로 후천의 선경을 세워서 세계의 민생을 건지려 하노라...」(『典經』 공사 1장 3절)」라고 한 데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남·녀의 문제도 그러한 先天의 지배원리가 인간사회 내에 적용된 것임을 시사한다. 즉 모든 대립적 관계가 ‘相克’으로 규정되던 시대에 여성은 남성에 대해 사회구조적인 약세를 지냄으로써 남성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고 이에 따라 여성은 상대적인 원망으로 얼룩진 역사를 살아왔다고 본다. 그리하여 ‘후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를 수립하기 위한 구천상제의 천지공사는 이와 같은 여성의 ‘冤’을 포함한 모든 ‘冤의 담지자’들로 하여금 그 ‘풀음(解)’의 과정을 밝게 하고, 이후에 다시는 원망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관계를 ‘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지배원리로서 후천세계의 大體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써 볼 때 ‘해원’의 개념은 인간적 ‘해방’의 의미를 포함하여 그 외연이 전 우주적인 차원에 걸쳐서 이해되고 있음을 보게 된다.

24) 여성학자인 이은선 교수는 여성문제에 대해 ‘생명역사적(bio-historical)’진화론의 관점을 소개하면서 「여성과 남성 모두가 오늘날 좀 더 포괄적이고 의미있게 자신의 세계관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긴 시간과 공간의 스펙트럼을 포함하는 ‘생명역사진화론’적 사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고 「이제 우주의 생명진화론적인 방향은 지구의 전 표면이 인간의 종으로 덮이게 된 후 더 이상 생식을 통한 인류의 수적 확장이 아닌 화합과 조화의 집중의 시기로 접어들었는데 이것은 가부장주의의 시기가 끝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고 주장하여 여성문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하기도 했다.(이은선 『유교와 페미니즘, 그 관계 맺음의 해석학』 1999, 한국유교학회 추계학술회의.)

이제 해원시대를 맞이 하였으니 사람도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버림을 받던 땅에 기운이 돌아오리라. (『典經』 교법 1장 67절)

해원의 양상을 말한다면 윗 글에서 볼 수 있듯이 명색이 없던 사람이 기세를 얻는다든지 버림받던 것에 기운이 돌아오는 것으로 묘사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간사회의 남·녀의 관계에 있어서도 명색이 없거나 사회적 버림을 받아왔던 존재가 여성이라면 천지공사 이후는 현실적으로 그 명색을 얻거나 기운을 얻어 소위 '여성상위'의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이다.

후천에서는 그 뒤은 바에 따라 여인도 공덕이 서게 되리니 이것으로써 옛부터 내려오는 남존 여비의 관습은 무너지리라. (『典經』 교법 1장 68절)

전통적인 남존여비의 관습이 무너지고 여성의 명색이 사회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여러 현상을 굳이 일일이 들지 않더라도 이미 오늘날의 시대는 여성해원의 모습속에 나아가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완전한 해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설명을 찾기 힘들지만 현재 우리 인류는 해원의 역사 속으로 인도되고 있는 것만큼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하겠다.

한편으로 이러한 해원의 과정은 후천의 평화로운 세계를 이루기 위한 과도기적 혼란상태로서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冤'의 뜻이 「자신이 '願'하는 바를 상대로 인해 이루지 못해서 생긴 '怨」이라는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다.²⁵⁾ 말하자면 '冤'의 담지자들이 그러한 원을 심어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여 그에 대한 뿌리깊은 보복심리를 발휘할 때에는 결코 바람직한 사회질서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구별'과 '조화', '위계'와 '질서'등의 원리는 모든 선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들이다.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러한 원리의 병적인 남용이지 원리 그 자체가 아닌 것이다. 다음의 구절은 이같은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주목된다.

상제께서 「이제는 해원시대니라. 남녀의 분별을 띄워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풀어놓았으나 이후에는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아 예법을 다시 세우리라.」고 박 공우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때 공우가 상제를 모시

25) 이경원 『해원상생의 의미와 天地公事』 대순사상논총 제 4집, 1998, pp.542~545
참조

고 태인음을 지나는데 두 노파가 상제의 앞을 가로질러 지나가기에 상제께서 길을 비켜 외면하셨도다. (『典經』 공사 1장 32절)

즉 여성의 해원과정에서 과도기적 상태에 있어서는 어떤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제각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남녀의 분별이 없어지는' 현상을 목도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상제께서 「...풀어두어야 후천에 아무 꺼리낌이 없느니라」²⁶⁾고 한데서 피치못할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후에 "건곤의 위치를 바로잡고 예법을 다시 세우는..."과정에서 진정한 후천의 모습을 보게 될 것으로 이해된다. 이같은 맥락에서 우리 시대는 후천의 세계를 맞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해원의 과정을 밟고 있음을 파악하고 나아가 다시 세워지는 예법을 통해 남·녀간의 아름다운 관계맺음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만 할 때라고 본다.

2) 새로운 관계로서의 상생

대순사상에 있어서 남·녀간의 윤리적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는 용어를 찾는다면 '相生'이라는 개념이 적합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相生'이란 '相克'의 반대용어로서 '상호 剋害'의 관계가 아닌 '상호 生成'의 관계를 뜻한다고 본다. 詞典에는 '五行相生'이라고 하여 자연 만물의 유기적 상호생성관계를 '상생'으로 표현하고 있다. 상극은 그 질서에 역행하는 관계를 뜻하며 따라서 서로에게 剋害의 피해를 안겨다 주게 된다. 상생과 상극은 이렇게 '順行'과 '逆行'의 차이와도 견줄 수 있고, 서로에게 피해를 주느냐 혜택을 주느냐의 차이로도 비유될 수 있다. 그런데 상생과 상극이 어느 특정의 개체간에서만 발생하는 절대개념인가 하면 그렇지 않다. 즉 동일한 개체간에도 한편으로는 상극으로 관계하는가 하면 여건의 변화나 개체간 의식의 변화에 따라 상생으로 관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행의 구성에 있어서 동일한 수의 象을 놓고 서로를 상생으로 연결시키기도 하고 상극으로 연결시키기도 하는데서 잘 나타난다. 따라서 상생과 상극의 문제는 그 개체간의 관계를 서로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가 그 의미를 결정하는 변수로 작용됨을 알 수 있다.

26) 『典經』 공사 2장 19절

대순사상에서의 상생은 동양의 오행관계에서 비롯된 생태중심의 윤리학으로부터 신명계를 포함한 종교적 영역으로까지 승화된 이 세계의 지배원리로서 일컬어진다.²⁷⁾ 마치 물과 불의 관계를 볼 때 서로의 성질을 달리한다고 하여 상극으로서 이해하면 서로를 소멸시켜버리지만, 불이 다 타고 시간이 지나면 물이 생겨나는 것을 볼 때 물과 불은 결국 본래적으로 상극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이다.²⁸⁾ 상극으로서 이해되어 생겨난 폐단은 모두 서로의 관계를 어떤 매개적 고리가 없는 단절된 관계로 파악하는데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이 세계의 모든 관계에 놓여있는 구성요소를 하나의 同體의식에서부터 파악하고 이것을 인간사회의 윤리적 측면에서도 적용시켰을 때 상극적 폐해가 아닌 상생이라는 상호 혜택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남·녀의 관계도 이와 같은 상생의 원리가 적용되어 그 바람직한 만남이 이루어 질 것을 강조함으로써 ‘상생의 윤리학’²⁹⁾이 성립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생은 윤리적 주체로서의 인간이 현실에서 어떤 방식으로 실천하느냐가 하나의 문제로 제기될 수 있겠는데, 이는 다음의 구절에서 그 일단을 찾아볼 수 있다.

한 고조는 소하(蕭河)의 덕으로 천하를 얻었나니 너희들은 아무 것도 베풀 것이 없는지라. 다만 언덕(言德)을 잘 가져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면 그가 잘 되고 그 여음이 밀려서 점점 큰 복이 되어 내 몸에 이르고 남의 말을 악하게 하면 그에게 해를 입히고 그 여음이 밀려와서 점점 큰 화가 되어 내 몸에 이르나니 삼가할지니라 하셨도다.(『典經』 교범 2장 50절)

윗 글에서 미루어 볼 때 남에게 말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마음의 선함을 지니고 상대를 나와 상생의 관계로 파악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상대를 증오하는 마음을 가지고서는 결코 말이 선하게 나올 수 없다. 이처럼 남·녀의 관계에서도 상생의 이념을 서로가 각성하면서 생활 속에 언덕을 잘 가져나가는 것이 하나의 실천적인 과제로 거론될 수 있을 것이다.

27) 김학택 「해원상생의 윤리적 의미」 국제중국철학회 제 10차 서울 국제학술회의, 1997 참조

28) 『典經』 교운1장 66절 「水火金木待時以成 水生於火 故天下無相克之理」.

29) 안종운 「相生倫理學」 대전대학교 부설 대순사상학술원, 2000 참조

IV. 글을 맺으면서 ; 남녀평등의 이념에서 인류평화의 이념으로

대순사상을 考究하는 마당에서 여성문제를 대입시킨 것은 21세기의 변화된 문명을 맞이하는 인류가 견지해야만 될 새로운 가치관의 확립과 관련하여 그 전환의 시점에 하나의 이슈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단 여성문제만이 인류의 과제가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나 외면해서는 안되는 하나의 사회운동으로서 이를 해결하는 노력은 지식인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여성해방 운동은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성으로서 여성차별의 경험의 역사에서 비롯된 만큼 여성 자신에게는 실존적인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으며 상대적 남성의 지배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인간본연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운동의 성격이 지금까지의 역사로 볼 때 그 자체의 자율성을 가지고 진행되지 못하고 언제나 다른 운동과 연합하면서 진행되어 왔다는 사실을 든다면 그것은 여성세력이 남성집단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없는, 그 억압자인 남성과의 유대가 어떤 것보다도 완전하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다.³⁰⁾ 따라서 여성해방운동은 남성의 협조하에 곧 인간해방의 문제로 귀결되어 투쟁보다는 화해의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장이 무엇보다도 요구된다 하겠다. 이런 시각에서 대순사상은 인류가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하고 아울러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도모하고 있다. 대순종지의 교의와 남녀평등의 이념에서는 음양합덕과 해원상생의 교의를 중심으로 남녀관계를 새롭게 해석하고 나아가 진정한 남녀평등이 종지에서 표방하고 있는 이념과 같이 남녀 각자 새로운 가치관으로의 의식개혁이 이루어질 때 가능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우리 인류사회가 지향하는 공동 염원이 평화라고 할 때, 이 평화는 인간 개인의 평안한 상태에서부터 출발하여 인간사회의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며 국가와 민족간의 전쟁이나 재앙이 없는 사회를 이루고 국제간의 이해와 협력으로 인하여 세계 공동체를 지향하는 이념 등을

30) Simone de Beauvoir, *The Second Sex* Jane English, ed., *Sex Equality* (Prentice-Hall: 1977) pp.75~76

포괄하는 개념으로 본다.³¹⁾ 역대의 위대한 철인이나 사상가는 모두 이와 같은 평화를 추구하는 노력 하에서 자신의 사상을 설파하였던 것이며 오늘날의 인류에 있어서도 '영구평화'에 대한 갈망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러한 평화의 노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지나 증오, 욕망으로 내닫는 인간의 잘못된 가치의식에서부터 비롯됨을 알고 대순사상과 같은 새로운 세계관에 대하여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20세기의 마지막 해에 우리 한국을 휩쓸었던 어느 대중가수의 「바뀌」라는 노래는 곧 우리의 가치의식의 개혁을 부르짖었는데 지나지 않으며, 여기에 인류의 평화를 위해 등장하는 '마지막 전쟁'은 결국 가치관을 달리하는 남·녀간의 관계에서 치러질 수 밖에 없음을 새삼 자각하게 한다.

31) 오석원 「유교의 대동사회와 평화정신」 『유교사상연구』 11집, 1999, pp.61~62